

칼럼

장기채 주필



덕담(德談)이 더 그리워지는 때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는 우리 사회가 극심했던 갈등을 넘어 좀 더 통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올해는 기해년으로 십이지의 마지막 동물인 돼지의 해다. 돼지해 금통, 돼지꿈, 꽃돼지, 복돼지 등 한국에서 돼지는 다산으로 재산을 불러 모으는 복의 상징이라고 하여 좋은 이미지다...

미있는 행사다. 이 행사는 오랫동안 사람 곁에서 함께 살아왔던 돼지의 상징성과 지금도 사람들 곁에 공존하는 돼지를 보여준다.

‘해신 비갈라 대장’, ‘저팔계’잡상, ‘십이지번(돼지)’ 등을 비롯해 ‘돼지 저금통’까지 70여 점의 유물과 사진, 동영상이 전시됐다.

제주의 ‘똥돼지’를 소개하는 부스에는 돼지우리라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곳에서 체험을 하며 사진도 찍을 수 있어 방문한 관람객은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곳이었다.

일본에서는 고양이와 돼지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신이 돼지를 결정하는 날을 알릴 때 낮잠을 자던 고양이는 이 날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쥐에게 물어보니 쥐는 거짓말로 다음 날을 알려줬다. 그래서 돼지를 결정하던 날에 가지 못했던 고양이

는 아직까지도 쥐와 사이가 나쁘다고 한다.

이렇듯 십이지는 한자문화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에 채택되어 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용’ 대신 ‘악어’, 인도에서는 ‘뉘’ 대신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신조(神鳥) ‘가루다’가 들어간다.

결국 십이지는 나라마다 접근감 있는 동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조금씩 다른 십이지 차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너그럽이 바라봐 주면 어떨까.

또한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에는 새해가 되면 서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비는 덕담을 주고 받는다. 참으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다. 그리고 호숫한 풍속이 아닐 수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덕담의 자세로 새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올해를 황금돼지의 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한국의 풍요로운 그리고 돼지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소원 성취하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새해는 제발 갈등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라도 국민에게 감동 주는 청와대 발 덕담이 온 나라에 가득 차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社說

‘대포차’ 더이상 운행 안 된다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됐다. 기대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지난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S)에 등록된 운행정보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적발된 운행정보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틀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출입기록 등 관공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는 범죄에의 악용, 각종 소원 성취하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새해는 제발 갈등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라도 국민에게 감동 주는 청와대 발 덕담이 온 나라에 가득 차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보명령은 2016년 2월에 도입된 이후 연 2회 합동단속(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법명의 차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출입기록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은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119 구급대원 폭행사고 안전예방 생활화 해야

119구급대원들은 소방기관의 일선에서 각종재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와 질병으로 인한 심정지 및 중증환자를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응급의료체계의 병원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그중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34명이 수사·재판중이다. 해마다 200여명의 구급대원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 오히려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폭행의 대부분은 주취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며, 지난해에는

폭행 가해자(167명)의 92%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폭행피해를 당한구급대원들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급대원으로서 자존감 또한 낮아져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 행위에 대해 소방기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관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사고발생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직접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폭행사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 헬멧이나 근무복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하여, 폭언, 폭행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이번 순직사고를 계기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어떠한 폭행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과 함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방관서에서 폭행사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사법기

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구급대원 폭행은 사회안정장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사회적 공감대형성이 더욱 필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119구급대를 애타게 기다리는 응급환자를 위해 9100여명의 구급대원들이 분·초를 아끼며 달려가고 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땀과 열정을 쏟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이 아닌 사랑과 배려, 존경을 보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또한 자동차나 주택에 소화를 반드시 비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종희 / 무안19안전센터장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女慕貞烈

女慕貞烈

▷ 뜻: 여자(女子)는 정조(貞操)를 굳게 지키고 행실(行實)을 단정(端正)하게 해야 함을 말한다.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리자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featuring two women.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 Includes a quote: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Thinking about others once from their perspective, wouldn't we be more considerate and respectful?).